

2017년 5월 23일, 조천읍 북촌리 현덕선 씨 댁, 강수경 조사.

현덕선(여, 1928년생, 조천읍 북촌리)

- 줄거리: 북촌리 사람이 말을 타서 김녕을 갔다 오다가 동복 넘어서 북촌리 바다 가까운 데까지 왔다. 거기서 차에 칠 때 말꼬리가 탁 눈을 치더니 깨어 보니 바다였다. 그런데 말꼬리에 맞은 눈 한쪽이 어두워버렸다.

[제보자] 옛날은 이 집 어귀 저 집 어귀에도 도체비 나곡 헌디. 또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련 앗안 완 보난, 그 저구리에 옛날 적삼 저구리 이런 지 속에다가 사람 죽넨 허민 머리털, 손톱, 발톱 다 놓 떡 놓고 헹. 걸 방장허민 그걸 몰른 사름은 봉가당 입 으민 벵이 들엉 죽었다고 했어요.

또, 그리고 어떤 사름은, 이제 우리 북촌광 동복 양 세에 바당 쪽에 큰 양어장이 잇는다. 그 동복 올라가는 식당이 바당 쪽에 있어요. 건 동산이 지경동산이엔 해요. 어떤 사름은 물 탕 김녕 간 오단. 그 동복 넘어산 갯것발이 오는 디 오단, 이 우리, 우리 바당이 가까운 디요. 그디 완 차를 탁 치나네, 물 꼬랑지로 탁 눈을 치난 영 보나네 바당이라. 그땐 물을 탁 현, 굿사 눈이 어둑워 벗어. 혼 착 눈.

경 허고 또 어떤 사름은 이제 저 면장헌 하르방이 지경동산에 오단에 도체비가 나난, 오바 보굼지에 그 도체빌 담양 완 보난, 집이 완 보난, 머리턱, 발톱, 손톱 그 걸로 도체비가 됫덴. 할머니가 골아주난 알았지.

경 헌디 그 동복서이 우리 북촌??정 그 갯것발 와도 몰른다. 도체비 귀신이 바릿 돌에 박음덜에(?) 허젠허난, 탁 찰 치나네, 옆구리로 눈을 탁 치난 '아 바당 왓구나.' 헹 물 아구리 심영 돌렸는데, 그 사람 눈 혼 착이 어둑웠어요. 석홍이 아방이 라고 헌 사람이. 겟 할머니가 골으난 알았주.

- 핵심어 : 말꼬리, 눈 어둑음, 도체비, 하르방, 도깨비, 북촌리